

“실패한 이웃들에 용기 주고파 매달 산에 오르죠”

2013 희망을 여는 사람들

〈2〉1급 시각장애인 김갑주씨

“스물두 살의 나이에 시력을 잃은 것이 제게는 ‘희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애인이나 실업자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습니다.”

광주지역 식품업체인 두메의 ‘장애인 CEO’ 김갑주(53) 대표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창업해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1992년 외식전문 업체인 두메 외식사업을 만들어 지난 2010년까지 직원 400여명에 연 매출 25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단순한 사업가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999년 장애인 전문 금융기관인 광주미래신협을 설립해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수익금은 장애인 자녀의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광주미래신협’ 설립

장애인 돕기 앞장

외식업체 두메 대표

사업가로도 주목

전액을 장애인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장애인 복지협회와 북구장애인복지협회의 회, 동신자활후견기관의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데 앞장서 왔다.

김 대표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표본으로 불리는 것은 단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삶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각장애인 CEO’ 김갑주(53·앞줄 가운데)씨가 지난해 11월 지리산 반야봉 정상에 올라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빛고을두메산악회 제공〉

많은 장애인인, 또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 대표의 산행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인들과 ‘빛고을 두메 산악회’를 꾸려 매달 두 차례 산을 오르고 있다. 처음에는 단지 취미였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등산을 한다는 말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대형 마트 때문에 힘들어 하는 동네 구멍가게 주인부터 실패한 사업가, 실업자 등 많은 사람이 김 대표와 함께 산을 오르며 용기를 얻고 있다. 또 그들은 반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김 대표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김 대표의 손을 잡고 앞서 걸으며 경사와 등산로 상태를 끊임없이 전해주는 것이다. 아름다운 단풍과 설경,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설

명해주는 것도 길잡이가 하는 역할이다.

김 대표가 현재의 자리에 서기까지 두 차례의 큰 시련이 있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인 지난 1981년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2년 만에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불행을 발판삼아 사업가로 성공했다.

지난 2010년에는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창업 18년 만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법정관리의 아픔보다 400여명에 달하던 직원을 감원해야했던 가슴 시린 상황이 더 큰 상처가 됐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올해 투자자를 모아 법정관리를 벗어나는 목표로 새해를 설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실패를 경험한 이들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뛰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2분

달돋이 22시 15분

달질 10시 16분

빙판길 조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구분	구분	기온
광주	구름많고한때눈	-5/0℃
목포	구름많고눈	-4/0℃
여수	구름조금	-2/1℃
나주	구름많고가끔눈	-7/0℃
완도	구름많고가끔눈	-3/1℃
구례	구름많고가끔눈	-6/-1℃
강진	구름많고가끔눈	-6/0℃
해남	구름많고가끔눈	-5/1℃
장흥	구름많고가끔눈	-5/1℃
순천	구름많음	-6/0℃
영광	구름많고눈	-7/-2℃
진도	구름많고눈	-3/1℃
전주	구름많음	-7/-3℃
군산	구름많음	-7/-3℃
남원	구름많음	-9/-2℃
홍산도	구름많고눈	0/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목포	04:48	10: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씨						
최저/최고	-10/-2	-8/0	-5/2	-3/3	-3/4	-3/4



새해 소망 기원

계사년(癸巳年) 첫날인 1일 광주시 남구 금당산 깃대봉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 참가한 시민 1000여명이 새해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동 학대·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흠피 게재한다

올해부터 아동 학대나 급식·위생 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 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을 공개할 예정이 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무등산 새해인파 몰렸다

해돋이 등반객 등 세밀 외지 관광객 급증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의 탐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차장에 즐비한 것은 물론 1일 해돋이 인파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립공원 승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심사자구 상인이나 시민들의 반응이다.

무등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김호옥(여·61)씨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뒤 등반객들이 크게 늘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7시, 무등산 서석대에는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해돋이를 보기 위해 500여 명이 몰려들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이날 오전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을 1만2000여 명으로 집계하기도했다.

해맞이 등반에 나선 사람들 중 상

당수가 전북, 대구, 서울 등에서 찾아온 외지인으로 과거와 사뭇 달랐다. 전지현(37·대구시 수성동)씨는 “경관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다”고 등반 소감을 전했다. 이충열(40·서울시 방배동)씨는 “주로 서울 도봉산에서 새해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왔다”며 “무등산처럼 아름다운 산이 광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운”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들은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 기지의 이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등산 아끼기, 일부 시설 보완 등을 바랐다. 한상수(41·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향상되고 정상에 있는 군기지가 이전돼야 진정한 국립공원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 내일 영하 10도... 모레까지 한파

3일 광주의 수은주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광주·전남지역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2~5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사이가 되겠다.

3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

로 나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광주·순천·구례·강진도 영하 10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감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4일에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사이에 머물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리산 야생 반달곰 생존 가능성

작년 태어난 새끼곰의 아빠 추정

지난 겨울 지리산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한 마리의 부계 혈통이 토종 야생곰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지에서 들어온 종 복원용 반달가슴곰이 아닌 토종 야생곰이 지리산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리산에 방사했거나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47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새끼곰 1마리의 부계가 방사곰이 아닌 것으로 나



지리산에 갓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

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새끼곰은 2005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어미곰이 지난해 1월 낳은 개체다. 함께 태어난 한 마리의 부계는 러시아에서 들여와 방사한 반달곰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구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백운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

전국점 목록

서울 성일로점 (광명동) 성일로 1가: 022276-0607, 구 강남점 (강남구 역삼동) 023477-5110, 동대문점 (동대문구) 02726-0220, 송파점 (송파구) 02419-3388, 선릉점 (선릉역) 2번 출구: 02986-1836, 경계점 (강남구) 029421-2288, 부평점 (부평구) 02617-5110, 수문점 (수문동) 021246-5110, 의정부점 (의정부시) 031821-6655, 안양점 (안양시) 0312001-4000, 아문점 (아문동) 031469-0110-1, 평택점 (평택시) 031658-5110, 용인점 (용인시) 031336-1090, 오산점 (오산시) 031378-4183, 부천점 (부천시) 033229-4400, 남양주점 (남양주시) 033922-8900, 부산 시민점 (부산시) 051818-8800, 시민점 (부산시) 051258-7200, 울산 울산점 (울산시)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시) 055281-6060, 진주점 (진주시) 055145-9870, 대구 중구점 (중구) 053425-4440, 상덕점 (상덕동) 053425-1511, 남일동점 (남일동) 053425-7575, 경북 포항점 (포항시) 054244-5110, 안동점 (안동시) 054659-2245, 광주 광주점 (광주) 06225-5110, 광주점 (광주) 062651-4477, 전남 순천점 (순천시) 061752-8845, 전북 전주점 (전주시) 063252-5728, 군산점 (군산시) 063446-0188, 익산점 (익산시) 063809-5600, 남원점 (남원시) 063632-2535, 대전 대전점 (대전시) 042254-5110, 대평점 (대전시) 042222-3388, 대전점 (대전시) 042255-1500, 충남 천안점 (천안시) 041538-2688, 광주점 (광주) 041352-5110, 충북 청주점 (청주시) 043253-5110, 세종점 (세종시) 043222-1177, 충주점 (충주시) 043652-1414, 강원 강릉점 (강릉시) 033647-5588, 춘천점 (춘천시) 033253-5110, 제주 제주점 (제주시) 064703-6366